

글쓰기의 4차원

어느덧 글쓰기가 소명이자 하나의 업이 되어버린 나로서는 레슬리 뉴비긴의 말은 아프다. 예수 는 책을 쓰지 않고 공동체를 만들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진리», 33) 주님의 의도는 당신의 이 야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창조에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과 공동체 를 동일시하셨다. 그랬기에 그분은 책이 아니라 사람에 관심을 두셨다. 그런데도 나는 글을 쓰고 책을 짓는 일이 고되기는 해도 즐겁다. 계속 가야 할 길ियो 부르심으로 여긴다. 이것은 주님의 의도에 반하는 쓸데없는 짓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예수의 공동체는 다름 아닌 예수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를 살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기록한다. 예수가 자신을 교회와 일치시켰듯이 성서와 부합한다. 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고, 그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눅 1:3) 미로슬라브 볼프는 말한다. “요컨대 나 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나는 한 권의 책도 필요로 합니다.” («베룩과 용서», 362)

그러면 왜 글을 쓰는가? 글쓰기란 무엇인가? 글쓰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글쓰기에 는 4차원이 존재한다. 영성 훈련으로서의 글쓰기가 그 첫째요, 둘째는 내면 치유로서의 글쓰기이 고, 다음은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데 안성맞춤이고, 마지막으로 소통 기술이다. 그러니까 글을 쓰 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지성을 훈련하게 되 고, 이웃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먼저, 글쓰기는 영성훈련이다. 영성은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의 거주 혹은 하나 님의 형상 닮기이다. 기독교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뒤따름이다. 성령의 측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영성을 무엇이라 정의하든, 영성의 최대의 걸림돌은 깊이 없음이다. 리처드 포스터가 진단한 우리 시대의 영적인 질병이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 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상은 근본적인 영적 문제이다.” («영적 훈련과 성장», 15)

나는 포스터의 영성 훈련 방법에 학습이 있다는 것이 반갑지만, 글쓰기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왜냐하면 글쓰기만큼 속도의 시대에 반하는 느낌이 없을 테니까. 글쓰기란 인내이고 기다림이고 깊이를 지향하니까. 영성,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기록은 그분과의 관계에 깊이를 더하고, 끈 기를 요하고, 속도에 반한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 설교나 성경 공부, 경건의 시간, 기도를 적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좋은 방법이 기도문 쓰기이다. 빌 하이벨스는 어느 곳에선가 “나는 내 기도들을 매일 글로 적 는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도 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공적 기도에 큰 유익이 있 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신자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큰 요인이 대표기도인 듯하다. 기도인지 설교 인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와 교인 들으라는 훈계다. 숫제 누가 누가 기도 잘 하나 시험한다. 기 도문을 작성하면 된다. 청산유수 같은 즉석기도보다 한 주간 내내 준비한 기도문 기도가 훨씬 은 혜롭다.

사적인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하는 동안 산만하고 분주한 마음을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간구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료해 질 것이고, 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게 된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기도 생활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으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다. 기도문을 쓰는 방법은 ACTS를 따라서 적어 나가 면 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6장)

둘째, 글쓰기는 내면을 치유한다. 글쓰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정 직하고 정확하게 성찰하는 도구이자 치유하는 수단이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온갖 상처들로 갈가리 찢겨진 내면과 마주치게 된다. 사랑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실과 눈물, 원한과 분노로 가득차서 외관상 예수도 잘 믿고, 가정도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유타대 전경구 교수는 「똑똑하게 화를 다스리는 법」(21세기북스)에서 하루 30분씩 거르지 말고 자기 안의 억압과 분노 등의 감정을 글쓰기로 표출하라고 원한다. 굳이 잘 쓸 필요도 없다. 솔직하면 된다. 그 와중에 자기 안의 응어리가 풀리게 된다. 여섯 살 때 네덜란드로 입양되어 양부의 학대와 성적 폭력, 정체성 혼돈을 겪게 된 윤주희는 거식증과 폭식증을 앓았다. 해결책은 글쓰기였다. 「다녀왔습니다」, 북하우스) 신문 인터뷰에서 말한다. “펜을 들자 용기가 생기고 치료센터를 찾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도 빼놓을 수 없다. 다윗은 상하고 깨진 마음을 기도와 찬양, 언어와 문장으로 남겼다. 그것이 그를 치유했고, 오늘 시편을 읽는 영혼들도 회복된다.

일기는 내면을 다스리는데 최상이다. “일기를 통해 나 자신이 결코 적나라하게 대면해 보지 못한 속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 고든 맥도날드의 말이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242)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산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나,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욕망하고 미친 듯이 해매도 어찌지 못하는 내가 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정당한 방법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추고 싶고, 덮고 싶고, 잊고 싶은 옛 기억들을 살려내 일기장을 채우면서 흐트러진 내면을 정돈하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용서한다.

셋째, 사고 능력을 증진시킨다. 다른 어떤 신앙과 견주어도 기독교는 통전적이다. 스탠리 존스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는 구절에서 길은 의지로, 진리는 지성, 생명은 감정으로 해석한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325) 그것은 진, 선, 미이고, 윤리, 철학, 종교이다. 성서신학적 타당성을 차치하더라도 분명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해서 동양은 생각을 비우라 하지만, 우리는 바른 생각을 채우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에 물들게 된다. 세상 풍조에 흡수되고 세상 가치를 좇아 살게 된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구절(롬 12:2)은 정신이 세상의 세계관에 동화되거나 순응하는 것을 경계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 당한다. 스캇 펙은 인간의 원죄를 게으름으로 규정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뱀의 유혹 앞에 하나님께 여쭙어보고, 그분과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가야 할 길」, 396-404)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다. 큰 죄다.

지성 계발과 글쓰기가 만나는 접점은 논리적인 글을 써보는 것이다. 대개 분량이 원고지로 10매 전후의 글이 될 것이다. 논술이나 칼럼, 사설이다. 대개 구성이 서론, 본론, 결론 또는 기승전결의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글의 구성과 형식, 언어와 문장, 내용과 관점, 정보와 자료가 골고루 갖추어져야 좋은 글이 된다. 말하기에 비해 몇 배나 힘들다. 몇 십분 혹은 한두 시간은 말할 수 있지만, 글로 표현하기란 고역이다. 성서와 독서는 생각의 내용을 채워준다면, 말하기와 글쓰기는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마지막으로 글쓰기는 소통 기술이다. 글과 글쓰기를 통해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 복음은 화목하게 한다. 막힌 담을 허물어 길을 열어주고, 파손된 다리를 이어 왕래케 하고, 틀어진 사이를 회복케 한다. 그 좋은 도구가 글쓰기이다. 쪽지나 메모, 편지, 심지어는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도 유용하고 파워풀한 수단이다. 사랑한다는 짧은 메모 하나도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런 간단한 글도 때로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따뜻한 감정을 복원한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술한 오해, 혹독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신학적 오류에 대항하여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 선교의 재정 후원과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고난과 박해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울의 편지들이다. 때로 고린도 교회에서 보듯이 사람들을 아프게도

했지만, 그의 글은 교회를 갱신했고, 교인들을 성숙케 했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지금 우리도 폭포수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

목사인 나로서 목회자들에게 교회 주보에 칼럼을 써 보기를 권한다. 주보는 단지 예배 순서나 소식 전달이 아니라 외부 전도와 더불어 내부의 신자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쓸쓸하다. 교우들은 신앙, 성서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삶과 가정에 많은 아픔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의 물음이자 문제이다. 목회자가 칼럼을 통해 지면 상담을 해 주고,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은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요긴하다.

또한 목사가 교인들에게 하고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것을 설교나 광고를 통해 하면 어색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휴스턴서울침례교회 최영기목사는 주보의 칼럼 코너를 신설해서 매주 교인들에게 교회 내 있었던 일들, 기도 제목들, 당부하고픈 것들, 자신의 실수나 고백, 아픔과 기쁨 등을 쓰고 있다. 목회자를 이해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된다. 주보 칼럼은 교인들을 상담해 주고, 교육하고,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데 탁월하다.

글쓰기는 4차원과 4중적 효과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영성 훈련, 자아의 상처를 회복하는 내적 치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성의 제자도, 타인과의 좋은 소통 도구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눅 2:52) 지혜는 지성, 키는 내면, 하나님은 영성, 사람은 소통이다. 약간의 억지와 과장이 없지 않다. 요는 전인적 성장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글쓰기는 유용하다는 것이다.